

5만원 주식 보름만에 70만원... 우선주 '폭탄 돌리기'

삼성중공업 10거래일 연속 상한가 13.7배 올라 상한가 기록도 경신

특별한 호재 없는 우선주 매수세 비이성적 상황... 투자 손실 우려

삼성중공업을 필두로 우선주 돌풍이 계속되고 있다. 특별한 호재가 없는 우선주에까지 매수세가 몰리며 상한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 잇따른 폭등으로 사실상 '폭탄 돌리기'가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만큼 투자자들의 손실 위험도 높아진 상황이다.

1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중공업은 전일보다 29.84%(17만1000원) 오른 74만4000원에 거래를 끝냈다. 지난 2일 이후 10거래일 연속 상한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일 5만4500원이던 주가는 74만원선까지 폭등하며 1265%나 올랐다. 13.7배나 뛰어 오른 셈이다. ◆우선주 돌풍 언제까지... 삼성중공업 1265% 뛰어

〈삼성중공업 주가흐름〉

날짜	삼성중공업 주가
1일	5만4500
2일	7만0800
3일	9만2000
4일	11만9500
5일	15만5000
8일	20만1500
10일	26만1500
11일	33만9500
15일	44만1000
16일	57만3000
17일	74만4000

연속 상한가 기록도 경신했다. 증시 가격상승 제한폭이 30%로 확대된 이후 최장기간 연속 상한가 기록은 2017년 3월 선박투자회사코리아02호(현재 상장 폐지)의 9거래일이었다. 또 한 번 폭등하며 다음 날 거래정지도 확정됐다. 지난 9일과 12일 단기와열종목,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된 데 이어 세 차례 거래

정지다.

상한가 행진은 이달 초 국내 조선사들의 대규모 수주 소식에서 시작됐다. 카타르가 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에 100척의 LNG선을 수주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이후부터다. 문제는 보통주와의 격차가 극심하다는 점이다. 삼성중공업 보통주는 이날 6470원에 마감하며 이달 초와 비교해 29.91% 오르는데 그쳤다.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115배나 높다. 우선주 상장종목 117개 중 가장 큰 차이다.

삼성중공업뿐만이 아니다. 다른 우선주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다. 남선알마우, SK증권우, 일약약품우, 두산2우B, 남양유업우 등 총 5개 우선주가 전일 상한가 마감한 데 이어 이날도 상한가에 거래를 끝냈다.

대부분 삼성중공업의 경우처럼 기업 호재에 따른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SK증권 우선주가 대표적이다. SK증권우의 급등은 SK그룹이 대주주로 있는 SK바이오팜의 유가증권

시장 상장 소식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SK증권은 지주사인 SK그룹과 달리 SK바이오팜의 호재와 전혀 관련이 없다. SK그룹이 아니라 제이앤더블유파트너스에 속한 계열회사로 상표만 사용하고 있다. 주가 급등에 합리적인 이유 역시 없다는 얘기다.

◆비이성적 흐름... '일시적 가격조정 우려'

우선주들은 대부분 유동 물량이 적다. 삼성중공업도 상장된 전체 주식 수가 11만4845주에 불과하다. 상장주식 수가 6억3000만주인 보통주와 비교하면 유동주식수가 많지 않다. 거래 가능한 주식 수가 적어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기 어려워 가격 변동성도 일반주에 비해 크다. 특히 지급처럼 수요가 몰릴 때 가격 변동폭은 더 커진다.

그만큼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서 괴리될 수 있는 위험성도 올라간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가격변동성이 일반적인 시기보다 높아졌다면 내재가치에서 괴리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증권가에선 우선주 과열 현상을 상승장 마감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다른 종목의 주가가 오를 대로 오른 상황에서 갈 곳 잃은 투기성 자금이 우선주에 유입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재윤 SK증권 연구원은 "통상 순환매 장세 마지막 국면에서 우선주 급등이 나타난다"며 "보통주의 주가 급등 부담 속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우선주 돌풍을 보며 '비이성적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투기적 성격이 짙어졌다는 얘기다.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우선주는 대개 얼마 못 가 급락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난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주의 괴리율이 커졌을 경우 장기간 유지되는 사태는 극히 드물었다"며 "현 상황에서 우선주 투자를 고민한다면 일시적으로 가격조정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예탁원-성장금융, 200억 크라우드펀딩 조성

혁신창업기업 전방위 지원 위해 투자유치·스케일업 공동지원 협약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 '혁신창업기업의 투자유치 및 스케일업 공동지원을 위한 협약'을 17일 체결했다.

이 협약은 금융위원회에서 지난 16일 발표한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크라우드펀딩 전·후방 지원을 통해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맺어졌다. 협약 주요 내용은 ▲창업 지원 및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펀드 조성 ▲창업기업의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IR행사 공동 개최 ▲K-캠프 글로벌투자플랫폼을 통한 국내기업의 스케일업 지원 ▲KSD모험투자지원플랫폼(벤처넷) 구축 및 활성화 등이다.

예탁결제원과 성장금융은 각 100억 원씩 총 200억원 규모로 창업지원 및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K-크라우드펀딩'을 신규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창업기업의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IR행사도 공동 개최한다. 예탁결제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이명호 사장(왼쪽)이 성기홍 한국성장금융 대표이사과 17일 혁신창업기업의 투자유치 및 스케일업 공동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포즈를 취했다. /예탁원

원의 'K-캠프' 및 부산 코워킹스페이스와 연계한 IR행사의 개최와 투자자 초청에도 성장금융이 참여한다. 코워킹스페이스는 부산시와 금융공공기관 7개사가 공동으로 조성 중인 공유오피스로 10월 이후 개소를 앞두고 있으며 성장금융도 입주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의 'K-캠프 글로벌투자플랫폼'을 통해 국내기업의 스케일업도

지원한다. 'K-캠프 글로벌투자플랫폼'은 해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과의 연계성을 통해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와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채널이다. 성장금융은 이를 통해 해외 투자를 유치한 국내기업에 대해 지원을 검토하고 우수한 대상기업을 추천할 수 있도록 유인한다.

'KSD 모험투자지원플랫폼(벤처넷)'을 구축하고 활성화할 전망이다. 예탁결제원의 '벤처넷'은 비상장사와 펀드 투자 참여자의 관련 업무를 전산화·표준화하는 통합 플랫폼으로 2021년 3분기 중 서비스 오픈을 앞두고 있다. 성장금융은 벤처펀드 운용사 및 투자기업 등 시장참여자의 의견 수렴과 참여유도를 통해 비상장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투자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 이명호 사장은 "한국성장금융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혁신창업기업의 지원과 모험자본시장의 육성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유동화회사보증 공급 계획〉

구분	연간	확정	예정*	
		6월	7월	8월
주력산업 등 유동화회사보증 (대상 : 중소·중견기업)	17,000	3,000	-	1,500
코로나 피해 대응 유동화회사보증 (대상 : 중견·대기업)	67,000	7,000	9,000	6,000
합계	84,000	10,000	9,000	7,500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 수요에 따라 변동 가능

/신용보증기금

신보, 7·8월 1.6조 이상 유동화증권 발행

신용보증기금이 7·8월에도 1조6000억원 이상 유동화 증권을 발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로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가 오는 하반기부터 본격화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신보의 유동화회사보증은 개별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기업이 직접금융 시장에서 장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신보는 코로나19확산이후 회사채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지난 5월말까지 공모 발행 회사채는 전년 동기와 같은 수준인 21조원 규모로 발행됐다. 그러나 세부 발행내역을 보면 AA급 이상의 우량 회사

채가 전년 동기 대비 3조2000억원(23.5% 증가) 늘어난 반면 BBB급 이하 비우량 회사채는 8000억원(61.0% 감소) 줄었다.

이에 따라 신보는 유동화회사보증 신규 공급 계획을 8조4000억원 규모로 크게 늘려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과거에 유동화증권 발행이 없던 7·8월에도 1조6000억원 규모의 발행 계획을 수립해 금융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기업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7월 발행을 위한 신청은 오는 24일까지이며, 8월 발행을 위한 신청은 7월 24일 까지도. /나유리 기자 yul115@

미래에셋대우, 자사주 1300만주 소각 완료

주식 가치 높여 주주 보호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3월 공시했던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절차를 최근 마무리했다고 17일 밝혔다.

미래에셋대우가 약 680억원을 투입해 지난 3월 23일부터 이달 4일까지 취득한 자사주는 모두 1300만주다. 이는 보통주 유통주식수의 약 2.4%(1분기 기준)에 해당한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8일 취득 주식에 대한 소각을 진행했으며 9일 등기 절



차를 완료했다.

거래소 변경 상장 예정일은 오는 18일이다. 소각 완료 후 보통주 상장 주식 수는 6억5831만6408주에서 6억4531만6408주로 줄어든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주식 가치를 높여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진행했다"며 "일반적으로 기업의 자사주 매입

과 소각은 유통되는 주식수가 줄어들어 일반적으로 주가 흐름이 개선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래에셋대우 주가는 지난 자사주 매입 시작 이후 완료시까지 약 70% 이상 오르며 증권업종 지수에 비해서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편 미래에셋대우는 약 1100억원 보통주 1600만주 규모의 자사주를 추가 매입 중이다. 오는 9월 7일까지 3개월 안에 장내 주식시장에서 매수할 예정이다. /송태화 기자 alvin@

KB證, 카카오프로 계좌개설땐 축하금

KB증권은 카카오프로를 통한 비대면 증권계좌 개설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17일 밝혔다.

고객들은 카카오프로 어플내 제휴서비스에서 '증권사 주식계좌' 메뉴를 선택하고 약관 동의, 카카오프로 입출금 연결계좌 선택, 비밀번호 설정, 신분증 촬영 절차만으로도 KB증권 계좌 개설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계좌 개설 후 카카오페이 인증 등 본인

인증 절차만으로도 간편하게 증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의 ID등록 절차 등을 없애 계좌 개설에서 주식 매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편의성을 강화했다.

KB증권은 서비스 오픈을 기념해 오는 7월 14일까지 '카카오프로'에서 KB증권 위탁계좌를 처음 개설하는 신규 개인 고객 전체를 대상으로 'KB증권 계좌개설 트리플 혜택 이벤트'도 진행한다. /손엄지기자 sonumji301@